

39강. 논술 현장수업 실제 (초등)

2학년 논술지도의 실제(1)

1. ‘친구’ 하면 떠오르는 말을 써보세요.

우정, 장난꾸러기, 학교, 게임, 김수진, 착하다, 예쁘다, 떡볶이...

(브레인스토밍의 기법 : 주어진 주제에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말하거나 적도록 한다.)

2. 1번에서 쓴 말을 한 가지 넣어 친구에 대해 문장으로 표현해보세요.

내 친구는 김수진이다.

내 친구는 장난꾸러기다.

내 친구는 착하다.

3. 친구가 있어서 좋은 점을 찾아 그 번호를 써 보세요.

(친구가 있어 좋은 점을 생각해본다)

- (1) 학교에 함께가기
- (2) 비밀을 이야기하기
- (3) 준비물 알려주기
- (4) 숙제 대신해주기
- (5) 게임하기
- (6) 심부름시키기

4. 어떤 친구가 좋은지 써 보세요.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친절한 친구, 고운 말을 쓰는 친구,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바른 태도와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은수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현호 : 은수야, 지금 오락하러 가자. 내가 돈 낼게.

은수 : 안 돼. 엄마한테 혼나.

진경 : 잠깐만 하고 가면 되잖아.

재영 : 선생님께서 오락실에 가지 말랬잖아.

현호 : 야, 너 바보같이 왜 그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1) 현호는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현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6. 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 때문이에요.

(자신의 좋은 점을 생각해본다)

7. 친구에 대한 내 생각을 써 보세요.

(앞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전개해 본다)

나는 친구가 참 많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만약 친구가 없다면 정말 재미없고 심심할 것 같다. 그런데 내 친구 수경이는 가끔씩 나쁜 행동을 하자고 꼬시기도 한다.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학년 논술지도의 실제(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오늘은 외할머니 생신이어서 엄마께서 아침 일찍 외가에 가셨어요. 그래서 나리는 혼자 집을 나섰어요. 엄마가 안계시니 갑자기 마음이 슬펐어요. 학교에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짝꿍 은지가 말을 시켜도 영 말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나리아, 너 오늘 왜 그래?”

“ ... ”

“너 엄마한테 혼났지?”

“아니야, 사실은 오늘 우리 엄마가 외가에 가서서 나 혼자 학교에 오고, 문도 혼자 열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속상해.”

“야, 뭐가 속상하니? 나는 우리 엄마가 회사에 다녀서 항상 그래. 어쩌다 한번인데 뭘 그래?”

“그래? 넌 속상하지 않아?”

은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리는 기분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숙제도 하고 청소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1. 다음과 목소리로 읽으면 어울리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번호를 써보세요.

(1) 확신하듯 읽어요.

(2) 궁금한 듯이 읽어요.

(3) 이상하다는 듯이 읽어요.

(4) 속상해서 시무룩한 목소리로 읽어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성격을 알아본 다음 결정한다.)

2. “그래? 속상하지 않아?” 라는 나리의 말을 듣고 은지는 나리에 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은지는 나리의 기분이 풀어질 만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처음엔 속상하고 무서웠는데 이젠 습관이 되어서 괜찮아. 엄마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지. 너도 엄마 안계시는 동안 시무룩해 있지 말고 숙제도 해놓고 그래. 그럼 엄마가 기뻐하실거야.

3. 은지가 집에 가서 무엇을 했을지 자세히 상상해서 써 보세요.

(은지가 마음먹은 것을 생각해본다)

4. 나는 엄마가 안 계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써 보세요.

친구랑 놀기, 텔레비전 보기, 컴퓨터 게임하기, 학습지하기, 숙제하기

(엄마가 안계시면 뭐든 하기 싫을 경우도 있다)

5. 엄마가 집에 안 계실 때 기분이 어떤지 아래의 두 의견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경험쓰기)

(1) 마음대로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왜냐하면

(2) 무섭고 슬퍼요. 왜냐하면

6. 엄마가 집에 안 계실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 생각을 써 보세요.

엄마가 집에 안 계실 때는 그냥 놀기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엄마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나도 공부를 자꾸 미루게 되고 실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엄마가 집에 안계셔도 내가 할 일을 미리 해놓으면 좋겠다.

3학년 논술지도의 실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한용이를 도와주세요.”

00초등학교 전교생 ‘암투병 학우 살리기’ 발벗고 나서

서울 00초등학교 전교생이 암을 앓고 있는 2학년 김한용 군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 군은 지난해 11월 갑자기 팔이 붓고 온몸이 쑤서 잠을 이루지 못해 동네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달에야 희귀암인 B-세포성임파구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주일에 이백여만원의 진료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한용 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00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최근 한용이 돕기 캠페인을 벌여 모은 돈을 김한용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

1. 우리반에 한용이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2. 한용이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3. 00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왜 한용이 돕기 캠페인을 벌였을까요?

4. 혼자서 돕는 것과 캠페인을 벌여 돕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도움보다 여러 사람의 정성이 큰 것을 생각해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198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도시 빈민들과 당시 럭키(Lucky)해안에 배가 좌초되어 생긴 1천여 명의 난민들이 있었다. 구세군 사관 조셉 맥피 정위는 이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옛날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누군가가 사용했던 방법이었다.

그는 오كل랜드 부두로 나가 주방에서 사용하던 큰 쇠술에 다리를 놓아 거리에 내걸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써 붙였다.

“이 국술을 짧게 합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탄절에 불우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만큼의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이웃을 돕기 위해 새벽까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한 사관의 깊은 마음이 오늘날 전 세계 107개국에서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실시하는 구세군 자선냄비의 출발점이 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어려웠던 시절 각 가정에서 끼니마다 한 손가락씩 쌀을 덜어 따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긴요하게 쓰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고 한다. 이 절미 저축운동을 ‘좁두리 운동’이라고 한다.

5. 구세군 사관 죠셉 맥피 정위는 누구를 도우려고 했나요?

6. 맥피 정위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나요?

7. ‘좁두리 운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웃을 도왔나요? (십시일반)

8. 구세군 냄비와 좁두리 운동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9. 이처럼 여러 사람이 정성을 모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0. 나는 불우이웃 돕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1) 나는 불우이웃을 도와 준 경험이 (있다 / 없다).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선행사 참여하기, 정기적 후원하기, 양로원 고아원 방문하여 직접 봉사하기,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기....)

(3)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써 보세요.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낸다. 학교에서 여는 알뜰 바자회에 적극 참여한다. 선생님과 의논해서 캠페인을 벌인다....)

*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라고 하면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아무 생각 없이 가

저다가 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돕는 것일까?

(4) 불우이웃을 도울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마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불쾌하거나 비굴해진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11. 진정한 불우이웃 돕기는 어떤 것일까요? 내 생각을 써보세요.

4학년 논술지도의 실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반 아이들은 선생님이 독서감상문을 써오라고 하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우, 너무해요. 책만 읽어 올게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안 돼. 감상문도 써와야 해.”

교실 여기 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선생님께서 좀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왜 책만 읽겠다는 건지 너희들 의견을 말해볼래?”

진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독서감상문을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꼭 책을 읽었다는 것을 선생님이 검사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 같아요.”

반 아이들이 진수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아래 위로 흔드셨다.

“독서 감상문은 검사 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받은 감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쓰는 거야. 또 쓰다보면 글쓰는 실력도 좋아지겠지. 그리고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쓴 감상문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 지혜가 손을 들었다.

“감동은 꼭 글로 써야 하나요? 저는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이 더 좋던데요.”

“아무리 진한 감동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게 되지.”

1. 선생님께서는 독서 감상문을 쓰면 어떤 점이 좋다고 하셨는지 써 보세요.

2. 독서 감상문에 대한 내 의견을 적어 보세요

(1) 독서감상문 숙제가 있을 때 내 기분은 어땠나요?

(2) (1)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3. 독서 감상문은 꼭 글로 써야 할까요?

(현재 초등학교 3-6학년의 독서기록장 내용 : 3행시 짓기, 책 내용 만화로 그리기, 책 광고 만들기, 독서퀴즈.....)

나라면 어떤 방법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고 싶나요?

4. 다른 친구가 쓴 독서 감상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노예 생활의 비참함
‘툼 아저씨의 오두막집’ 을 읽고**

‘툼 아저씨의 오두막집’은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글이다.

흑인, 백인, 황인은 얼굴색이 달라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이 누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톼은 레글리가 자신을 헐뜯고 채찍질까지 했는데도 레글리를 용서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톼 아저씨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1) 이 글을 쓴 친구가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2) 책을 읽고 난 뒤의 감동을 글로 남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될까요?

(3) 내가 감동적으로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감동적이었나요?

5. 독서 감상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보세요. (독서 감상문을 쓰기 싫은 이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하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쓰도록 지도한다)

5학년 논술지도의 실제

1.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각각 써 보세요.

남자

공통점

여자

2. 남자와 여자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말을 골라 보세요

<보기> 얌전하다. 깔끔하다. 멋지다. 아름답다. 씩씩하다. 용감하다. 튼튼하다. 섬세하다. 예쁘다. 부드럽다. 귀엽다.

(1) 남자에게 주로 쓰는 말

(2) 여자에게 주로 쓰는 말

(3) 공통으로 쓰는 말

3. 앞의 1, 2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말보다는 남녀의 구별없이 두루 쓰이는 말이 더 많다.....)

4. 다음 내용을 읽고 남녀 차별적인 생각에 ○표 하세요.

- (1)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투었을 때 무조건 남자가 참아야 한다. ()
- (2) 동생과 싸웠을 때 부모님께서 “여자니까 참아야지.” 라고 하셨다. ()
- (3) 목욕탕에 갈 때 남자는 남탕으로 여자는 여탕으로 간다. ()
- (4) 여자는 집안일을 잘 해야 한다. ()
- (5) 생일 잔치에 남자(여자)들은 남자(여자) 친구들을 더 많이 초대한다. ()
- (6) 여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남자들만 군대에 가야 한다. ()
- (7) 여자는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다. ()
- (8) 섬세한 일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잘한다. ()

5. 문제 4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쓰세요. (알게 모르게 주변에 남녀 차별적인 생각이 스며들어 있다)

6. 우리가 생활하면서 남녀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글로 간단히 써 보세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출석부에 숨겨진 남녀 차별

한 여학생이 출석번호를 정할 때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21번부터 시작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라며 여성부에 시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남녀 차별 개선 위원회에서는 출석부의 남녀 구별은 차별적 성격이 있다며 시정을 권고 했다. 해당 학교는 내년 1학기부터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출석 번호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7. 여학생의 의견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학생 먼저, 여학생 나중에라는 것이 남녀 차별인지 생각해 본다)

8. 출석부 외에 학교에서 고쳐야 할 남녀 차별의 내용을 써 보세요.
(환경미화를 할 때 여학생은 꾸미기를, 남학생은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 일을 구별하여 시키는 것, 체육 시간에 남학생은 축구나 농구를 하게 하는데 여학생은 응원이나 구경만 시키는 것 등)

9. 남녀 차별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와 우리의 노력을 보기의 낱말들을 넣어 간단하게 써 보세요.

<보기> 불쾌, 소중한 사람, 고정관념, 도와 주며, 민주사회, 행복

(예문) 남녀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차별을 받으면 불쾌하고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나 여자 모두 같이 소중한 사람이므로 서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남녀 모두 행복한 민주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